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5호 [루게 제24568호] 주제 103(2014)년 6월 4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아바나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트로 루쓰동지

나는 당신의 생일에 즈음하여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면서 존경하는 동지가 앞으로도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 103(2014)년 6월 3일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가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가 선물을 보내어왔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가 선물을 보내어왔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가 선물을 보내어왔다.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메히꼬로동당대표단 단장인 라우라 홀리마라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이 3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물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시였다.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결사투쟁의 정신으로 어로간 투를 힘있게 벌려 두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2만 4 000여의 건승어를 잡아내는 기록을 창조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어로공들에게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며 곁을곁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호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일떠선 어로공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이룩된 귀중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보내주신 감사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장, 조선인민군 장령부, 군관들,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군들, 어로공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보내신 감사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결사투쟁의 정신으로 어로간 투를 힘있게 벌려 두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2만 4 000여의 건승어를 잡아내는 기록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한 성과와 보고받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시였다 하신데 그는 결사투쟁의 투쟁정신으로 기록을 창조하고 있는 어로공들과 어로공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보내신 감사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인민군대의 어로공들을 평양에 부르시어 최상최대의 특전, 특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해의 첫 현지지도의 자욕을 수산부문에 새기시며 전군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또다시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승리의 보고는 평양으로, 물고기는 전선으로 보내자는 총정의 신념을 안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혁신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과 두달동안에 2만 4 000여의 건승어를 잡는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는 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겨주신 바다같은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어로공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더 높은 물고기잡이장비로 결사투쟁하는 선군시대의 어로공으로 든든히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서해지구 수산단위 어로공들이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매달 자기 단위, 자기 배앞에 맡겨진 물고기잡이장비를 무조건 수행하여 당이 올해 수산부문에 제시한 수산물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 데 크게 기여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일군들은 물고기잡이전투의 성과여부가 자신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어로공들의 정신풀기를 총괄하기 위한 특색있는 사상공세를 벌이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한 성과와 보고받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시였다 하신데 그는 결사투쟁의 투쟁정신으로 기록을 창조하고 있는 어로공들과 어로공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군들과 어로공들에게 보내신 감사 편지를 전달하는 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줄기의 세멘트생산기지 상원 세멘트연합기업소에 조선속도 창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 있다.

지난 5월 세멘트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이곳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할 드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 같이 떨쳐일어나 불붙을 가리 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요대 상건장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감동적인 소식들을 련이 접한 이곳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대고조건설장들에 보내줄 불타는 결의를 안고 산악같이 일떠섰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하루 빨리 마련해주려는 당의 웅대한 뜻을 높이 받들며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며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세멘트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여 중요대상건설장에서 요구되는 세멘트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높은 전투목표를 내세웠다.

조선속도 창조투쟁으로 부글부글 끓는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지난 5월, 연합기업소의 생산지휘부와 현장에서는 세멘트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당의 웅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인 기술혁신의 토론투쟁이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1 950년대 1만1천의 강제력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강인의 로동계급이 떨쳐일어나 천리마속도를 창조하였다.

결사의 의지와 각오로 만장일치의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의해 세멘트생산의 지름길을 여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과 합리적인 공정운영방안들이 나오고 생산현장에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증산돌격투쟁이 벌어져 생산속도가 확대되고있다.

연합기업소첨모부에서는 세계적인 세멘트생산수준에 맞는 연합기업소생산기지들에 혼란적 전망을 비롯한 원인으로 의거하여 부가물의 첨가비중을 높이는 것을 세멘트생산의 기본방도의 하나로 내세웠다.

조직적협력을 함쳐가며 부가물의 첨가비중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세멘트생산의 돌파구를 열어가고있다.

한편 연합기업소에서는 자체의 철광석생산기지를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여기서 생산된 철광석을 제때에 운반하기 위한 벨트크네베아수송선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 시기 연합기업소에서는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철부원료를 운반거리가 먼 다른 공장에서도 날라다가 리용하고 있었다. 최근 연합기업소에서는 해당 탐사대의 긴밀한 편제밑에 주변의 산지들에 대한 탐사를 강화하여 철부원료로 리용할수 있는 광물원천지를 찾아내었다.

지난해 5월 30일까지 벨트 크네베아수송선공사에 필요한 부분품 및 부속품생산이 전부 끝났다.

요성을 인식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한달이 걸려야 하던 부분품 및 부속품생산을 한 주일 남짓한 기간에 해제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6월중으로 끝낼것을 목표로 내세운 벨트크네베아수송선건설 공사가 결속되게 되면 많은 연

유를 절약하면서도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철부원료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

주강직장, 공무직장, 보수직장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은 당앞에 다진 세멘트생산목표수행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한달이 걸려야 하던 부분품 및 부속품생산에 한 주일 남짓한 기간에 해제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6월중으로 끝낼것을 목표로 내세운 벨트크네베아수송선건설 공사가 결속되게 되면 많은 연

유를 절약하면서도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철부원료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된다.

주강직장, 공무직장, 보수직장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은 당앞에 다진 세멘트생산목표수행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

독 쌓여 세멘트증산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특히 강동지구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보다 품질이 좋은 무연탄을 생산하여 이곳 연합기업소에 보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연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한계 단위씩 말

고 생산현장에 내려가 대중과 고티를 같이하면서 증산의 방도를 찾아내고 그들의 정신풀기를 총괄하기 위하여 비약적장소를 이룩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집중적으로 벌이고있다.

이달에 들어서서 석회석광산, 화원탄광, 삼정광산, 군정화석광, 원로직장, 소성직장, 세멘트직장을 비롯한 연합기업소의 모든 일터에서는 조선속도 창조투쟁의 불소리가 높이 울리고 련일 호련한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력사의 땅 명당지구를 뜨겁게 덥혀주는 조선속도 창조투쟁의 거센 열기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구상하시는 우리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건설장마디에서 기적과 혁신창조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명천 사진 본사기자 림학택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에서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에서 대상설비생산과 대형부분품가공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철심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적, 전인민적인 결사투쟁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도면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아버지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2013년 3월전원회의 결론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혁신적투쟁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연합기업소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혁신선

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려 기업소에 갖는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력사적인 2013년 3월전원회의 과업관철에서 기업소가 맡은 임무의 중요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고있다.

지배인을 비롯한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현장에 전투위치를 정하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생산조직과 지휘를 맡고 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라는 전투적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고조건설장에 용감히 뛰어들어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기간에 끝낼 목표일에 힘차게 투쟁하여 성과를 올리고있다. 또한 대형기계의 가공물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여 고수준세멘트공장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대형부분품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고있으며 무산과 결박을 비롯한 대고조건설장들에 대한 대항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제련기직장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첨단과학기술을 요구하는 대상설비제작전투를 줄기차게 벌리고있으며 주강직장의 로동자들은 전력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면서 전기로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금속공업부문들에 보내줄 대형중장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한 조건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매달 수십대의 주물품을 생산보장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 남

현대적인 생산공정이 은을 낸다

단천제련소에서

단천제련소에서 일떠선 현대적인 산화아연생산공정이 은을 내고있다. 현대적인 산화아연생산공정은 제련소에서 버려진 폐슬락을 재처리하여 산성조액을 만들어 기생생산공정에 보내줌으로써 제련소적인 유색금속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제련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산화아연 생산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잘 운영하는데 큰 힘을 넣어 요즘 제련소에 비하여 일생산량을 1.5배, 회고 2배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있다.

련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 많은 유색금속을 생산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데 애국의 한마음으로 가슴 불태우며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제련소초급당위원회에서는 지금 방대한 현대화사업과 현행생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대중의 심정에 불을 지피는 화선적투쟁사업을 집중적으로 참신하게 벌려 은 기업소가 창조와 혁신으로 뛰어넘게 하고있다.

공업시협소와 산화아연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내화물부분의 기술자들과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생산의 대공정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고있다.

원로공정, 회진로공정, 랄류공정을 지켜낸 산화아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정간 관계를 긴밀히 가지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작업반, 회진로 1, 2작업반, 베열보이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열대교 교체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만선의 배고통소리 높이 울려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넘치게 하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꾼들과 어로공들

서해어장이 경쟁열풍으로 들끓는다

지난 3월에 들어서면서 서해의 물고기떼의 출현으로 서해의 물고기포구는 번성해졌다. 중심어장을 타고오는 탐객에서 비활치듯 날아오는 어획통보에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수산관리국아래 각 수산사업소의 고기배들이 앞을 다투어 어장으로 달려나갔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210여척의 고기배가 어장을 메우다시피 했다.

어장이 활어졌다. 수산사업소들도 상강, 고기배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이 치열하게 벌어

졌다. 일꾼들의 치열한 조직사업에 의해 만단의 어구준비를 갖춘 어선들이 어장을 타고앉자마자 치열한 어로전이 벌어졌다. 물고기잡이에서 소문난 문덕수산사업소, 한천수산사업소, 온천수산사업소의 선장들과 어로공들이 첫날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어선마다에서 하루에 4~5기망의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혁신의 소식이 각 선단들에 전해졌다. 기망당 어획량도 대단했다.

푸른 물결을 타고 전해진 혁신의 소식으로 어장은 더욱 활어졌다. 가마포수산사업소, 정주수산사업소 선단에서도 만만

치 않게 도전해나갔다. 앞선 단위들에 비해 물고기잡이목표를 더 높이 세운 가마포수산사업소 어선들에서 하루 물고기잡이량을 전초초기에 비해 3~4 배로 끌어올리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맹렬하게 승벽을 다루는 경쟁열풍속에 기존관념을 초월하는 실적이 땅우의 경쟁도표판에서 어선들의 경쟁도표판에서 붉은 줄이 되어 콕콕 치고 있었다.

키들움하며 솟구치는 붉은 줄은 팔랑하는 파도와 맞서싸우며 한도 한도 물고기잡이실적을 높여가는 어로공들의 위풍을 말했

이 전하고있다. 세찬 바람이 불어대고 길길이 날뛰는 파도속에서의 물고기잡이전투는 보통의 각오와 용감함이 없이는 엄두도 낼수 없다.

5월전투가 끝나가던 지난 어느날, 바다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해상경보가 울리고 지휘부에서는 모든 고기배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것을 알렸다. 그러나 한천수산사업소 어선들을 비롯한 많은 배들은 어장을 떠나지 않았다. 문덕수산사업소의 어선들은 물고기떼를 찾아 대담하게 더 먼바다로

나갔다. 《대피하라, 대피하라!》라는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어선마다에 다급하게 울려오지만 답전은 절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물고기대공소식을 올리길 전에는 순간도 바다를 비울수 없다. 우리를 믿으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전에 한마음한뜻이 되어 떨쳐나선 이들의 각오는 참으로 비상했다.

한천수산사업소 11196호가 세찬 격랑속에서도 한기맛에 여러의 까리리를 후려쳤다. 권양기가 그물을 거의 끌어올렸을 때 바람은 또다시 기승을 부렸다. 어로공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물을 배에 막아 끌어올렸다. 조라를 틀어낸 선장의 얼굴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선장으로서 기민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할 긴박한 시각이었던 것이다. 배가 파도의 충격을 피할수 있게 조라를 역세게 틀어낸 선장이 어로지휘를 기동적으로 벌였다. 선장의 지휘에 따라 권양기의 쇠줄이 맹렬하게 켜지며 그물을 끌어올렸고 어로공들이 쟁쟁히 일손을 놀렸다. 모든것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맞물려들어가는 속에 선창에는 까리리가 폭포처럼 쏟아

져내렸다. 《이것이 물고기포구수령의 가운 수역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여러가지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이 과정에 높아진 4월과 5월 월생산실적을 넘쳐 수행하였던 월해전투목표수행을 위한 일정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각지에서 온 15개의 수산협동조합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치열한 생산경쟁을 벌이며 더 많은 수산물을 잡아내고있다.

사회주의경쟁에서 평안남도협동수산경영리위원회가 앞서나가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어로공들은 고기배들의 출어일수를 늘이는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과학적인 어로장을 틀어대고있다.

이 과정에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기한전에 점령한 수산협동조합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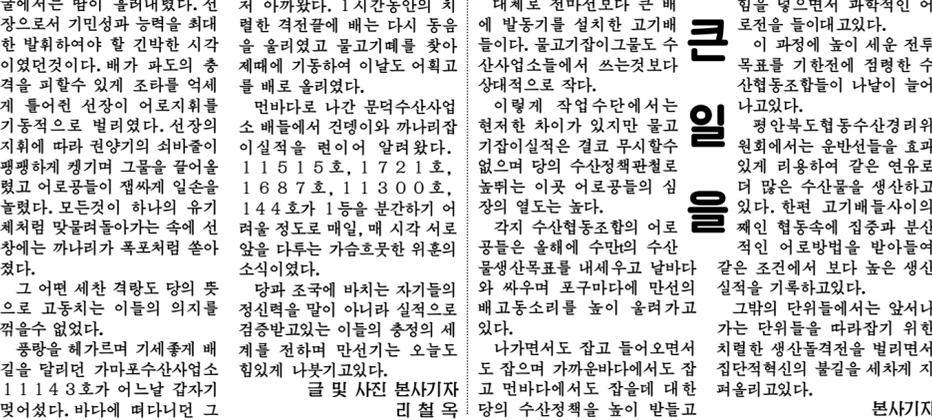
평안북도협동수산경영리위원회에서는 운반선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같은 연유로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고기배들의 책임협동속에 집중과 분산한 선어방법을 받아들여 같은 조건에서 보다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그밖의 단위들에서는 앞서나가는 단위들을 따라잡기 위한 치열한 생산투쟁을 벌이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것이 물고기포구수령의 가운 수역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여러가지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이것이 물고기포구수령의 가운 수역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여러가지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이것이 물고기포구수령의 가운 수역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여러가지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이것이 물고기포구수령의 가운 수역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여러가지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이것이 물고기포구수령의 가운 수역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여러가지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이것이 물고기포구수령의 가운 수역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여러가지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로구에 꽃피는 이야기

이런 일꾼들과 함께라면 포구에서나 물고기포구수령을 타고있는 어선에서나 쉽게 만날수 있는 낯익은 사람들이 있다. 수산성 일꾼들이다. 수산성의 각 부서가 물고기포구수령을 지휘선, 작업선들에 사무실을 지켰다. 수산성 책임일꾼들도 여러달째 어장에서 지휘선을 타고 어로지휘를 기동적으로 하고있다.

50여명의 성일꾼들이 선단마다, 어선마다에 자기 위치를 정했다. 그야말로 수산성이 통째로 서해어장으로 옮겨왔을듯 하다. 여기서는 어선별, 사업소별, 관리국별 종합실적을 손꼽듯 알수 있다. 일꾼들이 직접 배를 타고나가 어로공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화를 북으로, 역경을

바다에서 어로공들이 만났기를 날리며 물고기포구를 안아올 때 포구에서는 그 가공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관리국아래 각 수산사업소들은 물론이고 각지 삼업부서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서해어촌에서 견행이와 까리리를 정성껏 가공하고있다. 덕대우에 씨리발을 퍼놓고 건

어촌의 바다향기 산골마을들에도 멩이와 까리리를 말리우는 풍경은 참으로 불만 하다. 물고기비린내 풍기는 어촌은 어찌든 늘도 가장전투로 잠들 줄 모르고 있다. 이들이 정성껏 가공한 마른 수산물제품이 얼마전에 멩산, 양덕, 녕원, 신양 등 여러 산골

한 선장의 안해가 들려준 이야기 기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틀동안 찾아다니는 내일이 있었다. 3일째 되자 우리는 그를 만날수 있었다. 만나보니 그 내일은 물고기잡이명수로 소문난 한천수산사업소 선장 문경득동무의 안해였다. 우리는 반가웠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말은 《우리 기사장》이었다.

《그런데서 너는 말했다. 《오늘날 물고기잡이실적은 그 어떤 어로기술이나 어구에 있는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사상발동의 산물임을 우리모두는 지금 뼈저리게 절감하고있습니다.》》

은 사업소가 《우리 기사장》으로 부르는 강인복동무를 널리 소개해달라는 녀인의 목소리는 진정에 넘쳐있었다.

6천여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림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빠른 시일안에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할 목표에 힘찬 투쟁을 벌여 성과를 거두었다. 국토환경보호에 중추적 자료가 의하면 올해에만도 전국적으로 3만여정보의 림복합경영대상지에 6천여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시, 군들에서는 대상지를 바로 정하고 림복합경영을 대대적으로 조직 전개하여 알곡생산도 늘이고 산물의 수림화도 다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림복합경영방법은 산림토지에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와 함께 농작물, 약초, 먹이물 등을 재배하거나 집적승리크기도 배합함으로써 땅의 리용률을 높여 목재와 농작물, 산물 등을 생산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토지를 보호하는 새로운 산림경영형식이다. 림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이면 토양의 통기조건이 좋아지고 유기질양분이 높아지는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정질이 훨씬 개선되므로 심은 나무의 사물들이 높아지고 초기생장이 촉진된다. 자료에 의하면 이같은나무를 심은 조림지에서 림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인 결과 3년후 대조구에 비하여 심은 나무 사물들은

10~15%, 나무생장률은 30~40% 더 높아졌다고 한다. 림복합경영방법의 경제적 효과성을 깊이 인식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이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한사팔같이 떨쳐나섰다. 평안남도 일꾼들이 림복합경영방법 도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근로자들을 나무심기에 적극 불려일으켰다. 도에서는 지난 3월 순천시 금천리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참가자들에게 림복합경영방법대상지에서의 나무심기방법, 풀피조성과 풀두둑짓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순천시, 개천시, 덕천시에서 많은 면적의 산림토지에 창성이갈나무, 세잎소나무, 잣나무, 평양단풍나무를 심었고, 고향산천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면시킴에 어국의 열정을 안고 떨쳐나선 이곳 근로자들은 질 좋은 거름을 내고 나무를 기술적으로 심으면서 풀두둑짓기도 다그쳤다. 평원, 성천, 증산, 문덕, 북창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이 경영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도적으로 4 000여정보의 산림토지에 수백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북도에서도 목표를 높이 세우고 4 000여정보의 대상지에 창성이갈나무, 잣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 종류의

풍어기 펄펄 날리며 전속으로!

한천수산사업소의 운반선 11619호를 타고 이라고 귀털한다. 《미숙으로 전진, 선수, 선미 사촌!》

선장의 당찬 구령이 울린다. 날마다우에서 두 배를 뒀던하는 일은 조련치 않다. 허나 조라를 쥔 두 선장의 신속한 솜씨에 의해 순식간에 하선작업준비가 끝난다.

이 어운반선기중기의 견인할 차고리가 눈리도 달린듯 정확히 안강방선의 갑판에 드리워진다. 그때마다 물고기더미가 웅성



알곡생산의 예비-산림토지리용

산이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식량문제해결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는 산림토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림복합경영방법은 산림토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알곡생산을 늘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정지에서 수확고를 높이는 방법만으로는 늘어나는 식량수요를 원만히 해결하기 어렵다. 한편 여러가지 원인은 우리 나라에서나 막을수 없는 필연적현상이다. 림복합경영대상지들에 밭, 콩, 밀, 보리, 메밀, 옥수수 등 알곡작물을 심으면 기본정지에 못지 않게 높은 수확을 얻을수 있다. 특히 산림토지는 화학적으로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특색식물원료생산기로서 그 의의가 더 크다.

림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여 이면 생태환경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유리하게 조성할수 있다. 우선 산림토지의 회화를 막고 침식을 방지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다. 보호대책이 세워져있지 않는 밭에서 흩모래류실량은 밭 두께가 한해동안 평균 0.2cm이상(경모양 20m)에 달한다. 이것은 1cm 두께의 토양생성이 250년경도 걸리는것을 고려할 때 매우 큰 손실로 된다. 림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여 보호해

농장림에서 기름작물재배 수안군 천암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농장림을 잘 가꾸어 이득을 보고있다. 몇해전부터 일꾼들은 경제적인리 큰 림복합경영방법을 받아들일 높은 목표밑에 농장림에서 기름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해마다 불철비책 한사팔같이 떨쳐나 갔다. 나무들이나 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질적으로 심었다. 그리고는 농장림에 콩과 강방이를 심고 가꾸었다. 이곳 농장원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 나무를 심은 첫해에는 강방이와 같은 큰 작물을 심어도 적지 않은 수출이 났다고 한다. 다음해에는 여기에 키낮은작물인 참깨와 들깨를 심었다. 이렇게 하니 작물의 편작피해도 막을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년간 농장에서는 생산된 콩, 참깨, 들깨에서 짠 기름을 세대마다 공급해주었다.

메아리쳤다. 로 광 남지 배인이 하루 사업소적인 어획량은 120t이라고, 지난해의 몇배나 되는 생산수리라고 궁지에 넘쳐 이야기한다. 어느덧 여러척에 대한 하선작업이 전부 끝나 리순환선장의 구령소리가 또다시 울린다. 《기판시동, 귀함!》

통-통-통, 떠나올 때보다 선수가 1m나 물면에 깊숙이 박힌 운반선 11619호가 물을 향하여 무겁게 출발한다. 물고기포구수령은 점점 멀어지고 정든 포구가 가까워온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삼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발악하는 박근혜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기자

인권유린자들의 모략소동은 통할수 없다

남조선피폐당이 우리 공화국의 체제와 존엄을 위협하는 반공화국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피폐당은 《인권》이니 뭐니 하고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터무니 없이 외목하는 남조선전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는가 하면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남조선에 정식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이것은 여론의 눈길을 떠내려 돌려 《세월》 호참사로 인한 《정권》 위기의 심화를 막고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들어놓은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한것이다. 동시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영상을 흐려놓음으로써 동족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체제통일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후퇴도 용납할수없는 반공화국적대행위이며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정치적으로도발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적극 보장해주는 우리 인민의 인민적적격에 의하여 참다운 존엄을 지니고 부친 삶을 누려가고있다.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의 정치로 인민의 행복이 꽃피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지고있는 우리 공화국은 온 세상 사람들의 찬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온 겨레는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바로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찬양하고있다.

하지만 박근혜당이 집권하고있는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처지는 과연 어떠한가. 지금 남조선은 반역통치배들의 반인민적 악용으로 하여 인권생지옥으로 되고있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700여만명에가 거처할 집이 없어 하루하루를 뜰개생활로 연명하고있는가 하면 판자집, 비닐집, 집합, 동굴, 움막 등 집이난 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자들이 275만여명이나 되며 수백만명의 완전실업자가

거리에 차넘치고있고 하루 또는 몇개월정도 고용되어 낮은 임금에 조물리는 임시 및 일용직노동자와 같은 반실업자가 1000만명을 가까이하고있다. 학생들이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휴학과 파리로동을 하거나 의학생활에 내몰리던 끝에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한편 매일 평균 11명의 로인들이 목숨을 끊고있으며 그로 하여 지난 5월 5일 동양인도 로인자살자수가 7만 2만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하여 남조선은 사회를 저주하며 자살하는 사람이 매일 40여명에 달하는 자살자국으로 명명을 떨치고있다. 최근에만도 송과구 세 모녀자살사건과 30대녀인도 어린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사건 등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남조선에서는 나날이 성행하는 온갖 범죄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있다. 각종 범죄사건이 매일 600여건의 발생하고있으며 내성실종사건, 어린이실종사건 등 각종 실종사건들이 한해에도 수만건씩이나 일어났고있다. 초등학교학생들을 유괴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한 안양초등학교 녀학생살인사건, 흉기로 10여명을 죽이거나 부상당한 서울 강남구에서의 살인사건, 여학생의 너성을 강간살해하고 매장해버린 권포현살인사건 등 특대형살인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감행되고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목졸라죽이고 안해가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남편을 죽이는것과 같은 패륜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있고 자식 사외의 처안을 담당했다는 경찰청까지도 범죄행위에 가담해나서고있는 형편이다. 그렇고 보면 남조선사회에 대한 국도의 불안과 자포자기로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들의 해 세상을 경악케 하는 《문지마비》라는것이 도처에서 저절러지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어린이매매행위도 로골적으로 이루어지고있다. 피폐당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밑에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곳곳에 입양기관을 만들어놓고는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해외에 팔아먹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갓난아이의 남녀별, 혈액형, 외모 등에 따라 거래비용을 흥정하는 놀음이 벌어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주민들은 《해마다 평균 1300여명의 어린이들이 해외에 팔려있고있는것은 수치이다.》, 《어린이매매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국을 저주하고있다.

남조선이 이렇듯 사람 못살 인권의 불모지로 전락되게 된것은 근로대중의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는 반역정적으로 경제파괴와 사회적불평등, 부정부, 빈민의 사회악을 더욱 조장하고 독재통치를 일삼으며 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피폐통치배때문이다.

현 피폐정권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그 무슨 《국민행복시대》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달콤한 수작들을 늘어놓으며 자기가 집권하면 무슨 큰일이 나 될것이나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정권》의 자리에 틀고있어서는 불장사 보았다는 식으로 공약들을 다 채워버린 반역정체가 극구 매달렸다. 피폐당이 로인들에 대한 긴급구호금, 반공등목금 지급 등을 스스로 파기해버린것은 그 대 표적징계이다.

남조선당국은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일체 짓밟으면서도 더이상 살수 없게 된것을 전례없는 처사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피폐정권자는 아주적으로 란입하고있다. 피폐정권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서도, 독재의 뿌리에서 돌아난 역대 회의의 몸서리치는 인권교살 《정권》, 극악한 대결 《정권》으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박근혜도 레외없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서울에서 범국민초보집회 진행, 1만여명의 각계층 군중 참가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8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세월》 호참사 범국민초보집회의 주최로 5월 31일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범국민초보집회가 진행되었다. 박근혜당의 친인공노할 집 단적대항집회를 단행하는 두 차례의 대규모초보투쟁이 벌어졌던 서울 청계광장에 이날도 초보들을 높이 추르는 각계층 군중 1만여명이 모여들었다. 《세월》 호참사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터치는 《실종자들에 찾아가라!》, 《끝까지 찾아가라!》, 《성역없이 조사하라!》, 《박근혜도 레외없다》,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분노의 웨침소리가 집회장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정부》와 《세누리당》이 각계의 초보투쟁에는 아랑곳없이 여전히 《세월》 호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나서지 않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세월》 호참사로 딸을 잃은 한 녀성은 《세누리당》이 박근혜를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대해 비난하였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기에 더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려적진상규명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78만여명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서명을 받는 가족도, 서명을 하는 시민들도 모두 울면서 운동을 벌이고있다고 전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서울의 거리들에서 시위행진을 벌였다. 한편 경기도 안산의 문화광장에서 두 대우비안 《정부》 초보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 참여한 박근혜도 레외없다,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항의투쟁은 살인악마 박근혜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진판대우》란 장판이상의 고위직에 있었던자들이 퇴임 후에도 그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것을 말한다. 법관피피우 안태호는 지난해 7월부터 개인노노노를 하면서 5개월 낫긴한 사이에 《진판대우》로 무려 1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것은 그가 하루에 1000만원씩 벌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부당수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안태호의 《국무총리》 후보지명은 즉시 남조선 각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되자 지금껏 법관출신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을 주장하던 안태호는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11억원의 사회적 반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금때맞은 이자는 자기가 검사



살인악마 박근혜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

위 대한 정도 자 겁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력강성,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아무리 어려운 혁명과업이라도 자체의 힘을 동원하여 책임있게 수행하려는 주인다운 태도이며 일단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는 완강한 투쟁정신입니다.》

사자봉체육단은 지난 시기 많은 국가대표선수들을 배출하였으며 최근년간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재능있는 국가대표선수들이 나오게 된 비결

리를 건설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체육단의 실정을 놓고 볼 때 자체와 로력이 엄청나게 모자랐지만 장철수동무는 대우의 정신력을 발휘한다면 능히 해낼수 있다는 결심으로 심장을 불태웠으며 대우의 앞장에서 중 임을 불리었으며 나갔다. 일 군들과 중 임원들은 선수들의 체육기술발전의 밑거름이 될 한마 음에 이념적으러 대우를 보강사업도 제때에 따라세우면서 사모가 한영어리가 되어 부 임지개간과 집점승우리건설을 강화하게 되고나갔다. 이 나날 장철수동무는 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발이 없도록 뛰고 또 뛰었다. 그는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돌리면서 대중을 이끌어갔다. 비쌍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앞장서달라는 그를 두고 중 임원들은 불같은 일꾼이라고 한

회와 도인원위원회급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가 이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해주고있다. 그들은 체육단에 정상적으로 찾아와 결된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기술발전을 적극 고무해주며 한 가급히 더 해결해주기 위하여 쓰러진 마음을 기울였다. 이곳 체육단선수들에게 대한 열정적 지도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훈련된 선수들이었다. 메고온 도검찰소, 도무연관리국을 비롯한 도검관 일꾼들의 진 지한 사색과 노력도 있었었다. 올해 들어와 체육단에서 내세운 목표는

복을 금지 못하면서 적극 따라나섰으며 마침내 체육단에서 내세운 목표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달성할수 있었다. 안채를 메고 달리는 일꾼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보기가편이다. 이런 뜨거운 애국의 마음, 자력강성의 투쟁기 풍속이 마련된 후반기자들이 선수들의 기술발전에서 한몫 단단히 한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무슨 일이든지 하고 결심하고 달려붙으면 못해낼것이 없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절감한

는 방해하지만 모든 일들이 잘되어나가고있다. 종목별교수훈련도 실속있게 벌어지고있으며 대상에 대한 공사로 치차처럼 맞물려 계획대로 드림없이 진척되고있다. 단장인 장철수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체육단의 스키선수들을 모가아래 불러주시고 훈련모습도 보아주시고 경여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은 지금 모든 일꾼들과 감독, 선수들에게 비와의 나래를 맡아주는 원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인심을 실장님이 간직하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기수가 되어 체힘으로 체육단의 보다 밝은 앞길을 펼쳐가려는것이 우리 전체 중 임원들의 한결 같은 의지이며 결심입니다.》

본사기자 전철호

민심이 백성을 뒤흔기 위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지방자치제선거가 있게 된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것으로 하여 각계의 특별한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 호참사를내걸고 이번 선거를 《정권》을 단호히 실권하는 계기로 단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한편 《세월》 호참사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중지에 몰린 《세누리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등 돌린 민심을 회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지역에서 《세누리당》의 반역정치를 단호히 민심의 지지를 격극 단호하였다. 남조선인론들은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개혁세력을 지지하는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피폐정권세력은 《국무총리》 임명과 개각, 청와대인사개편 등이 선거승패를 뜨는 요인으로 필적하고 판단하면서 그에 대해 적극 광고하였다. 하지만 박근혜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뽑은 안태호라는자는 부정부패경력이나 드러나 미칠것 후보사퇴를 선언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심복측들에게 불신을 주기를 해호하고 불리한 선거정국을 돌려세우려던 박근혜에게 없던데 덮친 격으로 되고 말았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남조선에서는 상대후보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선전을 비롯한

선거부정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연합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세누리당》의 한 인물은 어느 한 지역의 기초단체장후보공천을 받기 위해 그 지역의 《국회》 의원에게 여대의 금품을 섬겨바쳤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에 범 피적력을 가지고있는 수많은 전 파자들이 후보로 나서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이 폭로한데 의하면 서울 은평구의 한 《세누리당》 후보는 5차례에 걸쳐 사기협착 등의 위법행위로 벌금을 낸 경력이 있는 언론사의 한 《세누리당》 후보도 문서위조와 폭력 등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인터넷에는 《후보로 나서자면 전과가 필요한다.》,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중에서 유수준은 귀여운 정도.》, 《절대로 문서위조까지, 망심없는 인간들》 등으로 조소하는 글들이 차넘치고 있다. 어느 한 시민사회단체는 광역단체장후보 61명중 28명이 전과자라고 폭로하면서 시, 불, 형명, 유수준, 보도공,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파자들이 몇몇이 후보로 나서는 사회현실을 개탄하였다.

인민들을 기만우롱하며 반민 민적악정으로 《세월》 호대참사까지 벌여내고 이제 또다시 각종 공약들을 말하며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선거참배를 모면하려고 오그랑수를 쓰는 반역당계력들에게 남조선 각계는 저주와 규탄을 퍼부었고있다. 본사기자 장윤남

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후보를 앞둔 《세누리당》 후보로 남정적적목적을 실현하려고 온갖 견모수술을 다 쓰지던 과거의 악명 높은 《국무총리》 독재의 뿌리에서 돌아난 역대 회의의 몸서리치는 인권교살 《정권》, 극악한 대결 《정권》으로서의 저들의 흉악한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김 현 철

로 있을 당시 법정에 내세우고 형벌까지 가하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현, 박주선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빌려는 뻔뻔스러운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의 말을 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부정부패에 이골이 났던 안태호를 누가 꼽다고 반기며 그런 추악한 인간을 《국무총리》 후보로 내세운 박근혜를 누가 잘한다고 도와주겠는가. 남조선 각계에서는 《진판대우》로 벌여온 11억원을 반환하고 《국무총리》 자리를 열겠다는것은 어떤데까지.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면 어떻게 《판타이판타이》를 칠것이고 《세월》 호참사와 같은 재산을 막아내겠느냐.》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들도 돈을 반납한다고 하여 부정부패경력까지 없었는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해나섰다. 이런 속에 안태호의 지금까지의 재산형성과정과 그의 자금출처를 명백히 밝힐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로 하여 더는 버릴수 없게 된 안태호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나서보지도 못하고

태의 책임을 지고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당장 교체하라고 요구해나섰다. 결국 새 《국무총리》의 임명으로 지방자치제선거전에 개각과 청와대인사개편을 단행하여 위기를 돌파하려던 박근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세월》 호대참사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위호를내는 통치기반을 수습하기 위한 그의 인목교체계획은 오히려 인민들의 비난과 항의의운명을 고조시켰다. 이런것을 가리켜 후속 메러다 하나 더 벌인 격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청와대에 망조가 들었다.

위기를 더해준 괴리총리 후보지명놀음

안태호의 금작스러운 사퇴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였다. 안태호의 사퇴와 관련하여 청와대것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열나갈 벌어들이고 《국무총리》를 천대하며 임명하여 궁지에서 헤어나보려던 박근혜 역시 목북부담으로 매우 한마디 못하고있다. 안태호의 기자회견에 청와대대개거러들은 이제 《국무총리》 할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있다 한들 여러한 검증이 기다리는 안태호에 누가 오겠다고 하였는가고 탄식만 늘어놓았다. 안태호의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 《가장 적중한 인사》라고 추어올린 《세누리당》 패거리들은 《안태호》는 의미다비명만 걸었다. 한편 야당들과 각계 단체들은 안태호의 후보사퇴는 《과거의 잘못된 인사방식에서 전혀 벗어 나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 사사를 손발부터 하려다가 발생한 사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체계의 무능에 그 한몫 드러난것이다.》, 《민중을 위한 인사가 아닌 청와대를 위한 인사의 결말》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사

라 영 국

《몇몇 동안 매일 같이 찾아와 친철육의 심정으로 들봐 주니 이제는 당당의시를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마음이 허전하다.》, 《이전처럼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에 갔을 내가 유능한 당당의사를 결여 두고 건강을 잃어 건강관리를 할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것은 엄성혁동무의 당당 지역 주민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다. 그는 오늘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쉬임없이 많은 길을 걸고있다. 비록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치료에방사선에서의 보다 큰 성과를 위해 의학과학연구기관의 연구사들과 상급병원의 의료진들을 찾아오 그 스스로 걸고 또 걷는 그길은 호담당의사의 참다운 본분을 다해가는 향방과 현실의 길이다. 본사기자 방경찬

호담당의료일군의 본분을 지켜

동흥산구역 양지종합진료소 의사 엄성혁동무

그 후 그는 당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료해를 다짐고 깊어하는 한편 해당 질병들을 높은 수준에서 대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진료소에 찾오이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물론 당당지역에 찾아가 진행하는 전진진료과 치료 등으로 언제나 바빠지만 그는 순간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자료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시간의 여러 단위를 찾아다니며 임상실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 나날 엄성혁동무는 여러 전문과적치료방법들과 함께 같은 질환도 제법특성에 따라서 달라질까 하여 할 치료방법들을 원만히 익히었으며 일부 난치성 질환들을 짧은 기간에 완치시킬수 있는 자기의 고유한 특기를 소유할수 있게 되었다.

그 진정에 눈굽이 젖습니다

의사의 건강에 좋은 귀한 보약과 식료품은 물론 땀과 가을남 새끼정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평안남도제진관리국 류용동동무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신여년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류용동동무는 남편과 저의 생 일날은 물론 국가적인 명절날과 휴식일이면 저의 집에 먼저 들려보고서야 마음을 놓곤 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가슴뜨거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의 딸 은정이가 갓난생형형학으로 떠날 때에 있는 일입니다. 그때는 류용동동무가 뜻밖에 남편을 잃은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류용동동무는 학원으로 떠나는 저의 딸을 위해 생일을 다하였습다. 리 영 속

저는 평정시 총령동에서 사는 영애군인 리홍식의 아내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것은 저의 남편과 우리 가정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평안남도제진관리국 일꾼들과 중 임원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존경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안남도제진관리국 일꾼들은 저의 남편을 관리국의 중 임원으로 등록하고 수년동안 남

본사기자 전철호

반제자주의 가치높이 지배와 예측,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온 세계의 자주화는 인류공동의 투쟁과업

인류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현시기 세계 인민들앞에 나서는 공동의 투쟁과업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온 세계를 자주화한다는것은 세계적범위에서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측, 침략과 전쟁을 없애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도록 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에 기초하여 국제관계를 맺고 국제사회를 민주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화된 세계는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지배와 예측이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세계, 다시말하여 국제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된 세상이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인류사주위의 당면한 투쟁목표이며 현시기 세계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선차적이고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 지배와 예측은 제국주의의 고유한 본성이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의 역사이며 전쟁과 지배는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동반자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정책은 침략적, 약탈적본성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집행된다.

오늘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가 제국주의의 본성인것만큼 제국주의가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 투쟁해나간다는 견해와 예측을 낳는 근원을 없애고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할수 없다.

자주화된 세계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이다.

세계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발전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를 있는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지배할 민족과 지배받을 민족이 따로 있을수 없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완전히 자주적이게 되는것이다.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행사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신성한 권리에 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평등과 호상 존중의 원칙에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도 말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남에게 강요하지도 말아야 한다.

나라의 크기와 발전정도에는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은 서로 평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며 투쟁한 몇개 나라의 친결과 독단을 허용하지 말고 그에 굴복

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때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

침략과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다가갈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지향과 염원이다.

침략과 전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은 지배와 예측의 위협을 면할수 없으며 경제, 문화건설에 필요한 평화로운 환경도 마련할수 없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려는 진보적인류의 지향과 염원은 온 제국주의자들에게 의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히고있다. 미래는 무력충돌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파괴하고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으며 평화의 절대적담보란 있을수 없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측에서 벗어날수 없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 평등하고 공정한 국제관계를 맺을수 없다.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온갖 의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남의 장단을 춤을 추거나 남이 하는 일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나간다면 제국주의

와 지배주의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되며 그 어떤 강권이나 지휘봉도 통하지 않게 된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친결과 강권을 짓부셔버릴수 있도록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변함없이 견지하는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반제자주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 통일단결을 강화하여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은 자주력량과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간의 치열한 대결과정이며 투쟁이 없는 결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수 없다.

세계의 모든 반제자주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온 세계의 자주화가 앞당겨질수 있다.

매개 나라 인민들은 다른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반제반미투쟁을 강하게 벌려나간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을 없애고 온 세계가 자주화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자주적이며 진보적인 나라 인민들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는것이다.

선군정치인 위대한 생활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시작하신 50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진술서(이하 5월 20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영도자는 세계정치사에 특기할 자위정치사가시다. 그의 정치철학은 자주주의의 지도사상으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추세사상이나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주체사상을 혁명화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였다.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었을 때 조선이 뜨겁도 하지 않았던것은 그의 투철한 자주로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계의 반사회주의세력이 총동원되어 《사회주의는 몰락했다》를 떠돌던 때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사회주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영도자께서

이건설의 역사적효과 우리당의 총로선》, 《사회주의에 대한 웨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과학성, 승리의 필연성을 논증하시였다.

그이의 자주정치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것은 선군정치이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자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하여 로골적인 침략과 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반제자주의 가치높이 사회주의의 길로 드림없이 전진하는 조선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공세를 들이쳤다.

이러한 정세에 하에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선군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셨다. 그의 이데올로기 선군정치가 사회의 기본정지방식으로 정립되었으며 선군정치에 의해 조선의 군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치게 되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총공세속에서도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가 굳건히 수호되게 되었다.

조선이 미국의 횡포한 도전을 견뎌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몰락》을 물려주던 때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사회주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영도자께서

펼쳐놓은 놀라운 현실앞에 국제사회는 찬탄의 목소리를 금치 못했다.

《세계면전에서 제 할 소리를 다하면서 미국의 코드를 꺾어버리는 조선》, 《미국의 강권과 전쟁에 맞서 큰소리를 치며 강대국이라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 《조선의 자주적인 선군정치에 의하여 수세에 빠지고있는 미국》, 《미국이 세계를 끌고나간다는것은 미국을 끌고나간다는것이다》, 《조선의 자주적인 선군정치가 세계의 반제자주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의활동을 집력적으로 벌리신데 대하여 려고하였다》

김정일영도자의 자주정치와 위력과 생활력은 우리 인민들의 리념과 조선의 북과 남이 장엄한 6.15통일시대를 안아온 데서도 감춰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높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를 정복하시려는 야욕을 버리고 통일을 위하여 싸우시려는 업적을 소개하였다.

김정일영도자의 자주정치와 인류 자주운명을 언제나 승리로 이끄신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자주정치적 거점으로 영생할것이라고 같은 강조하였다.

도이칠란드정당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 18차 토론회 호소문을 지지

도이칠란드공산당이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 18차 토론회 호소문을 지지하여 지난 5월 1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도이칠란드공산당은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 18차 토론회에서 채택된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 로동당, 진보적정당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호소문은 토론회참가자들이 일치하게 자주, 선군의 가치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과 건설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회주의조선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아들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도이칠란드공산당은 토론회참가자들의 호소에 호응하여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을 계기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며 위대성공업시 전사업을 진행할것을 결정하였다.

선군의 위력으로 존엄명치며 남을 따라 강성한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찬란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벌가리아신문 《노보 로브니 제스코 델로》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선군정치는 조선의 시종 일관한 평화애호노력과 민중적인 정정적력에서 기인한다. 대외고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 조선은 미국의 악랄한 압살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조선은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회주의국가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는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일영도자의 독창적인 선군정치가 의해서 조선은 그 어떤 실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력사의 필연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선군정치는 조선의 시종 일관한 평화애호노력과 민중적인 정정적력에서 기인한다. 대외고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 조선은 미국의 악랄한 압살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조선은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회주의국가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는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일영도자의 독창적인 선군정치가 의해서 조선은 그 어떤 실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력사의 필연이 아닐수 없다.

선군의 승리는 력사의 필연

국제 사회 계가 강조

네팔신문 《아트판》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맞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거둔 성과들은 선군에 의해 마련된 력사의 필연적실현이었다.

조선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연승하고있는것은 이 나라가 누구도 감히 견딜수 없는 강국임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로므니아근로자혁명위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 조선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와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

가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인공지구위성제적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상상품에 우뚝 올라갔다. 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펼쳐가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보면서 위대한 평양을 모신 조선인민에 대한 부러움을 금할수 없다.

인도네시아신문 《인더내셔널 메디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본본질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사회주의조선의 선군의 위력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 오늘날 선군정치는 김정일영도자에서 의해서 굳건히 계승되고있으며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고야말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가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인공지구위성제적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상상품에 우뚝 올라갔다. 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펼쳐가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보면서 위대한 평양을 모신 조선인민에 대한 부러움을 금할수 없다.

인도네시아신문 《인더내셔널 메디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본본질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사회주의조선의 선군의 위력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 오늘날 선군정치는 김정일영도자에서 의해서 굳건히 계승되고있으며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고야말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가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인공지구위성제적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상상품에 우뚝 올라갔다. 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펼쳐가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보면서 위대한 평양을 모신 조선인민에 대한 부러움을 금할수 없다.

인도네시아신문 《인더내셔널 메디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본본질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사회주의조선의 선군의 위력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 오늘날 선군정치는 김정일영도자에서 의해서 굳건히 계승되고있으며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고야말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반성의 길인가, 재침의 길인가

일본속담에 남은 용서하고 자신은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고 자기에게는서는 엄하게 질책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오늘 일본반동계층은 이와는 달리 오만하고 파렴치하게 행동하고있다. 지난 시기 저지른 침략역사와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의곡, 미화하고 은폐하는 등 범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며 그 책임에서 한사코 발백하려고 하고있다.

군국주의부활을 떠들며 재침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최근 일본에서 일본군성노예 강제행위사실을 인정한 고노 이진 내각관방장관담화작성정위를 조사하는 검증그룹이 나오고 회의를 개회하였다.

어제날에는 고노담화를 계속하겠다고요른스며 떠돌아다니는 일본이 오늘에 와서는 자기의 침략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이진 정부들에서 취한 조치까지 부정하며 과거범죄를 한사코 외곡하고있다.

일본특유의 파렴치성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력사의 전례와 정의를 거스르면서 과거의 역사를 뒤집고 군국화, 우경화를 다그쳐 재침야망을 거머쥐어 실현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세계가 경악할 특대형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특히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가장 야만적인 행위로서 력사에 그 죄행이 뚜렷이 남겨진 전대미문의 가장 포악하고 잔악하기 그지없는 대범죄이다. 가장부인은 물론 10대의 어린 소녀들까지도 달치는대로 끌어가 침략부리의 성노리개로 삼은 아시아의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역사에는 크고작은 침략행위들과 전쟁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있지만 한두명만 의 고위정책들이 즐김이 나서서 《군가가 관여한 자료가 없다》, 《누가 돈을 바라고 매춘부들이 한 자발적인 행위》라느니,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없었다》, 《느니 뉘니 하며 지

단날의 죄악을 감추어보고 비렬하게 늘어대고있다.

최근 일본반동계층은 앞장서 서서 과거범죄행위를 공공연히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고있다.

과거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태도는 지금 극도에 이르렀다. 오늘 일본이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과거죄악을 부정하는 추태가 도수를 넘고있는것은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과거범죄부정행위와 역사외국책들은 재침의 전주곡이다.

그러나 최근년간 일본이 끝없이 부흥하고 력사의 진실을 외곡하려 해도 력사와 인류의 기억속에서 일본의 과거범죄를 절대로 지워버릴수 없다.

일본은 부질없이 높아졌듯이 아니라 과거범죄를 사죄하고 배상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이것이 현 일본정부와 적국의 오명을 벗는 길이다.

미국은 책한 미국어에서 제국주의의 실정자각과 세로 특목되고있지만 오바마는 여기에는 안중에도 없이 메일과 같이 풍채대고있다.》라고 야유 조소하였다.

이뿐만아니라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성적희대, 아동학대가 체계적으로 증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정신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다.

지나예 미국은 콜로리다주 법원이 최하의 흑인범을 백주에 살해한 백인경찰의 범죄행위를 무죄로 선언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인권을유린범위를 저지르고있다.

미국에서는 날로 만연되는 살인과 강탈, 총기류범죄로 하여 사람들의 인원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있는것은 미국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의 결과이다.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국내에서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오늘 미국은 지구상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인권유린범죄를 저지르고있다.

지난 시기 미국이 《반레로》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레로 분자》로 몰아 야만적인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였다는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암담한 현실

총기류범죄사건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쉘라 바르라시에서 지난 5월 23일 한 청년이 시에 있는 한 대학근처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면서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사격을 가하여 6명을 살해하고 7명에 부상을 입혔다. 또한 5월 24일 벨지오의 버뮤에에 있는 한 박물관앞에서 무장한 범죄자가 사람들을 향해 총사격을 가하여 3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당하였다.

실업위기 격화

이탈리아에서 경제체제로 실업위기가 격화되고있다. 5월 28일 이 나라 통계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의 수가 약 53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도이칠란드에서 5월에 실업자가 291만명에 달하였다고.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만

4 000명 더 늘어난것이라 한다. 5월 28일 이 나라 평양로동사부수가 이에 대해 밝혔다.

재무위기

에스파냐에서 은행들이 많은 빚을 지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다. 지난 5월 19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3월에 전국의 은행들이 총 수익액이 1 927억 7 000만€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에서 헌법개정 반대 시위

관세발전을 추동할 중로수외상봉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가 진흥 신시외상봉조약 체결 안시 조지 제1회 제4차 수외회의를 계기로 중로 두 나라 수외상봉이 있었다.

이번 상봉은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친선협조관계를 총괄하고 두 나라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강화할 전시기기 위한 전망을 열어놓을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두 나라 수반들은 상봉을 통해 쌍무관계를 포괄적인 동반자관계 및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음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고 공고한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다방면적인 계획들을 토의하였다.

중국국가주석 습근평과 로씨야대통령 푸틴은 회담에서 쌍무관계와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실질적인 협조를 부단히 확대하고 심화시켜 두 나라사이의 전면적인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가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서도록 추동할데 대해 결정하였다.

습근평주석은 중로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며 공고히 하는것은 쌍방의 공동의 력사적 책임이라고 하면서 경제무역과 투자, 에네르지자원, 항공우주, 하부구조건설, 인민생활 등 여러 분야의 협조를 추진하고 서로의 배양을 강화하며 복잡다단한 국제 및 지역정세에 대처하여 군사분야를 비롯한 안전 분야에서의 협조를 심화시킬데 대해 강조하였다.

푸틴대통령은 로중관계가 전면적으로 빨리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중국어에서의 로중사이의 밀접한 협조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요소라고 단언하였다.

회담후 두 나라 수반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전면적인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의 새로운 단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46건의 협조문건에 조인하였다.

두 나라 수반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전면적인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의 새로운 단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46건의 협조문건에 조인하였다.

두 나라가 함께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 호상신뢰와 전략적 협조의 새로운 수준을 보여주는 이번 연운은 두 나라 군대사이의 협조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중국과 로씨야는 수외상봉과 그 과정에 제정된 포괄적인 협정들에 토대하여 쌍무관계를 가일층 강화해나가고있다. 특히 두 나라사이에서 가스납입계약 체결된것은 중로관계발전에서 하나의 큰 진전으로 된다.

두 나라의 민족화해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두 나라 수반들이 참가한 가운데 로씨야의 무역은행과 중국은행사이에서 계약 체결된 다음날부터 로씨야의 무역은행이 중국의 인민폐에 의한 국제결제통을 시작하였다.

전문가들은 인민폐에 의한 결제업무가 두 나라사이의 무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푸틴은 화폐금융분야는 로중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에서 민족화해체로 결체를 사업을 추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사실은 중국과 로씨야의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될것을 잘 보여준다.

평화와 친선, 호상신뢰의 원칙에 기초하여 마련된 중국과 로씨야사이의 전면적이고 밀접한 호상협조는 두 나라의 발전과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 추동하는데서 훌륭한 디딤돌로 될것이다.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터 들춰내야 한다

미국은 책한 미국어에서 제국주의의 실정자각과 세로 특목되고있지만 오바마는 여기에는 안중에도 없이 메일과 같이 풍채대고있다.》라고 야유 조소하였다.

이뿐만아니라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성적희대, 아동학대가 체계적으로 증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정신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다.

지나예 미국은 콜로리다주 법원이 최하의 흑인범을 백주에 살해한 백인경찰의 범죄행위를 무죄로 선언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인권을유린범위를 저지르고있다.

미국에서는 날로 만연되는 살인과 강탈, 총기류범죄로 하여 사람들의 인원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있는것은 미국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의 결과이다.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국내에서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오늘 미국은 지구상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인권유린범죄를 저지르고있다.

지난 시기 미국이 《반레로》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레로 분자》로 몰아 야만적인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였다는것은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터 들춰내야 한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도 미국은 판파나모미해 군지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꾸러놓은 비밀첩첩을 사람에게의 경악을 자아내는 인권유린범죄를 수없이 저지르고있다. 오죽하면 로씨야의 보잉이 판파나미해군기지 공격을 폐쇄할것을 요구하면서 이 강국에서 사법제도도 인권이 유린되는것으로 하여 미국역사에 《수치스러운 페이지》를 기록하였다고 평하였겠는가.

최근시기에는 미국의 정략행위자료들까지 인이 폭로되어 국제사회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인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가안보장국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화통화내용들을 총유하며 한달동안 보관할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 대한 전화도청행위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무도한 인권유린행위로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하지만 미국가안보장국은 20여만명의 요원들과 수많은 정략위성들, 방대한 자료기지를 가지고 세계통신의 95%이상을 도청하고있으며 미국정부의 고위직관들은 매우 심각하게 존재하고있는데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있으며 심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정정적 불명명, 오해의 여지없이 존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인권유린범죄들을 더 많이 수집하여 폭로할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터 들춰내야 한다

이런 말씨체를 인이 올릴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권보장제도는 매개 나라의 문화와 전통, 력사발전과정과 다른것으로 하여 서로가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의 인권보장제도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해서는 안된다는것은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이다.

미국이 떠드는 인권이란 미국식인권이므로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그대로 내리먹이는것은 용납될수 없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나라들을 보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보는 나라들이다.

미국이 노리는 속심은 《인권문제》를 검토 다른 나라들에 대한 협박화해보자는것이다.

자부속의 속곳은 갈수록 좁아지는 법이다. 미국이 제이무리 불순한 목적실현을 위해 《인권》소동을 벌려놓았으나 그것은 속심을 절대로 감출수 없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려 했듯이 아니라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터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이런 말씨체를 인이 올릴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권보장제도는 매개 나라의 문화와 전통, 력사발전과정과 다른것으로 하여 서로가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어느 한 나라의 인권보장제도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해서는 안된다는것은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이다.

미국이 떠드는 인권이란 미국식인권이므로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그대로 내리먹이는것은 용납될수 없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나라들을 보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보는 나라들이다.

미국이 노리는 속심은 《인권문제》를 검토 다른 나라들에 대한 협박화해보자는것이다.

자부속의 속곳은 갈수록 좁아지는 법이다. 미국이 제이무리 불순한 목적실현을 위해 《인권》소동을 벌려놓았으나 그것은 속심을 절대로 감출수 없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려 했듯이 아니라 제 집안의 인권허물부터 바로잡아야 할것이다.